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군창건 75돐을 경축하는 성대한 열병식이 2월 8일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거행되었다.

건군절기념열병식이 거행되게 될 김일성광장과 그와 잇닿은 대동로에는 강군의 위용넘친 혁명무력의 각 군종, 병종대오들과 첨단무장장비들이 엄숙히 정렬해있었다.

열병식주악을 맡은 공훈국가합창단이 입장하였다.

장엄한 무력시위의 전투적열광을 접하며 미더운 항공특전병들이 난도높은 집체강하기교로 활공하면서 건군절의 밤하늘에 환희로운 불보라를 펼치고 찬연한 광채를 뿌리는 국기와 당기를 거족으로

휘날리며 날아내렸다.

이어 혁명군가의 기백넘친 선물로 광장을 진감하며 종합군악대의 레식이 진행되었다. 조선인민군 각급 연합부대 군기입장의 식이 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리실주녀사와 함께 광장에 도착하시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 영접의식이 엄숙히 진행되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와 공화국무력의 주요부대 군기들을 사열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을 국방성 지휘관들과 대련합부대장들을 비롯한 조선인민군 장령

들이 정중히 영접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열병광장 주석단에 나오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열병대원들과 관중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 소년단원들이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게양식이 엄숙히 거행되었다.

노래 《빛나는 조국》의 장중한 주악이 울리며 21발의 레포가 발사되었다.

이어 열병식준비검열이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리병철원수가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이 준비되었음을 정중히 보고올리었다.

드디어 영광스러운 우리 공화국의 백전백승사를 빛내어온 혁명강군의 장엄한 열병행진이 개시되었다.

주체혁명의 성스러운 전통과 계승성을 뚜렷이 보여준 상징종대들의 뒤를 이어 당중앙결사옹위이자 곧 조국수호이고 혁명의 전진이며 승리이라는 북무의 철학, 백승의 철학을 옹변하며 당중앙위원회호위처종대, 국무위원회 경위국종대, 호위국종대, 호위사령부종대가 보무당당히 행진해나갔다.

적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공포에 떠는 정예부대들의 군기를 휘날리며 조국수호의 전초선에서 최대의 격동상태를 유지

해나가고있는 군집단들이 장검을 비껴든 지휘관들을 위시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짚었다.

바다의 결사대, 하늘의 방패로 용맹 떨치는 해군, 공군종대와 공화국무력의 불가항력의 상징인 전략군종대, 특수작전군종대들도 당중앙이 출전명령만 내리면 질풍노도쳐나가 적들을 섬멸하고 승리의 개가를 높이 울릴 전투정신으로 총천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준엄한 나날에나 평화로운 나날에나 항상 혁명의 전위, 계급의 전위에 굳건히 서서 조선혁명의 혈통, 조선로동당의 사상과 위업을 결사보위해나가는 군위병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었다.

(2면으로 계속)

